

명화 속 발레, 인문학으로 춤추다



발레, 미술관에 가다

한지영 지음

루이 14세는 발레 무용수였다. 정확히 말하면 '밤의 발레'라는 작품에 출연했다. 그는 어려서부터 발레를 좋아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의 발레에 대한 재능, 관심을 눈여겨본 철마자랑 초기에는 발레에 참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권유와 아울러 지원을 받았다.

루이 14세는 춤에 대한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 오전에 승마 훈련을 마친 뒤에는 발레 수업을 받았다.

루이 14세를 '태양왕'이라고 불렀는데 그의 초상화 가운데에는 화려한 자립의 발레 복장을 한 그림이 있다. 금빛으로 빛나는 옷은 마치 태양처럼 빛나고 군데군데에는 태양을 상징하는 장식들이 달려 있다. 화려하지만 천박하지 않고 우아함과 깊이를 드러낸다.

발길부터 머리까지 휘황한 금빛은 왕의 위엄을 드러내지만 한편으로는 예술적 분위기를 활기한다. 얼핏 보기에도 세련된 여자 무용수의 프로파일처럼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그도 그럴 것이 포즈가 기막힌 예술의 한 장면이

다. 몸은 대각선 방향으로 틀어져 있고 사선으로 내뱉은 한쪽 발은 금방이라도 발레의 동작을 취할 듯한 분위기다. 당당하면서도 권위가 느껴지는 정지된 장면은 왕이라는 존재가 발현하는 통치력, 발레가 활기하는 예술적 미가 정교하게 결합돼 있다.

'발레, 미술관에 가다'는 명화 속 발레에 대한 이야기이다. 국민대 공연예술학부 겸임 교수 한지영 무용가가 쓴 책으로 그림과 인문학으로 풀어낸 발레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 "발레의 찰나를 언어로 불잡고, 움직임 너머의 생각을 글로 옮기는 일"에 대해 진심인 저자는 역사와 무대를 종횡무진 횡단하며 발레를 들려준다.

사실 발레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예술이다. 동작도 그렇고 복장, 시선, 손동작에 이르기까지 가까이 다가가기에는 사뭇 '부담스러운' 장르다. 그럼에도 저자 발레는 대중들에게 친숙한 예술로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는 중이다. 특히 TV 프로그램 '스테이지 파이터'(스페어파)에 출연한 발레리노들의 역동적이면서도 균형 잡힌 동작과 기품 있는 자세 등은 시청자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다른 무엇보다 책은 제목부터 인상적으로 독자들을 끌어당긴다. 발레를 의인화해 생동감을 부여할 뿐 아니라 마치 발레가 독자들을 초청하는 것과 같은 형식을 취했다. 발레에 이끌려 미술 작품을 관람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미술이라는 예술 장르에 담긴 발레의 역사, 문화, 사회 등이 다채롭게 엮여 있다.

저자는 15개 키워드를 그림에 걸쳐서 인문학적 시선으로 발레를 들여다본다. 독자들이 익히 아는 '백조의 호수', '지젤' 같은 작품도 있고 앙나 파블로바와 바 zlibraffinijski 등 불세출의 발레리나와 발레리노를 소개하는 부분도 있다.

'발레리나의 화가' 에드가르 드가를 비롯해 틀루즈 로트레크, 에두아르 마네 같은 화가들을 단번에 사로잡은 것에서 보듯 발레에는 특유의 매력이 있다.

책의 구성도 발레 작품의 형식을 차용했다. 발레가 2막으로 이루어져 있듯 책 또한 2개의 장으로 구조화돼 있는 것이다.

먼저 1막 '무대가 열리다'는 발레의 시작부터 예술로서의 자위를 인정받기까지를 다룬다. '발레의 어머니' 카트린 드 메디치의 기복이 심했던 드라마틱한 삶, 최초 발레로 평가받는 '왕비의 코미크 발레' 등 발레에 드리워진 다채로운 내용들을 만난다. 러시아 제국의 개혁이 파생한 고전 발레의 계통, 작품들의 나오기까지의 감춰진 이야기들도 펼쳐진다.

발레와 무대 위 이야기를 조합화한 2막 '별들이 춤추다'는 스타 무용수와 인생의 무용수들 이야기를 포함한다. 전자 안무를 비롯해 발레에 투영된 동양문화까지 아우르고 있어 지역 호기심까지 충족시킨다. 군무에 대한 저자의 애정은 특별하다. 조화와 균형, 통일을 위해 흘리는 땀과 눈물은 발레를 새롭게 보게 하는 기제다. '돈키호테'의 스페인 춤, '호두까기 인형'의 캐릭터 댄스 등 발레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는 요소들은 인문학 교양서로서 흥미로운 사유를 제공한다.

<북파움·2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렇게 된 이상 포항으로 간다

정보라, 최의택 지음

한국 사회를 들로 나눈다면 '사기를 친 사람'과 '사기를 당한 사람'으로 나뉠 듯 하다. 그만큼 사기는 일상 깊숙이 파고든 고질적인 문제다. 전세사기부터 보이스피싱, 대출·투자사기까지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우리는 늘 '언제든 당할 수 있다'는 경계 속에서 살아간다.

정보라와 최의택이 '사기를 친 사람'을 키워드로 한 릴레이 장편소설 '이렇게 된 이상 포항으로 간다'를 펴냈다.

2022년 '저주토끼'로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오른 정보라와, 2021년 '슈뢰딩거의 아이들'로 제1회 문운성 SF 문학상과 SF어워드 장편 부문을 받은 최의택의 협업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번 작품은 정보라가 사기 가해자 '보리'를, 최의택이 피해자 '의택'을 맡아 각자의 시선으로 한 장씩 교대로 써 내려가 하나의 장편으로 완성했다. 독특한 작업 방식에도 불구하고 서사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몰입도를 높인다.

책은 실제 사회적 논란을 넣었던 '국가사업 석유 시추공 프로젝트'를 모티프로 삼는다. 평생 사기의 표적처럼 살아온 보라는 시추공 분야 사기 사건의 가해자로 휘말리고, 그녀에게 전 재산을 맡긴 '의택'은 피해자가 된다. 서로를 믿지 못하면서도 서로 말고는 기밀 곳이 없는 두 사람은 진짜 사기꾼을 찾기 위해 천안에서 포항까지 동행을 시작한다.

여정은 추격과 오해, 크고 작은 해프닝을 거치며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블랙 유머가 곳곳에 배치돼 읽는 재미를 살리지만, 웃음 뒤에는 사기가 개인의 삶을 어떻게 봉괴시키는지에 대한 불편한 질문이 남는다.



<요다·1만6800원>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인류를 구한 12가지 악 이야기인류에게 필요한 11가지 악 이야기

정승규 지음

소회제, 해열제, 진통제, 감기약, 영양제... 약은 늘 우리 곁에 있다. 그런데도 정작 우리는 약이 어떻게 태어났고, 무엇을 바꾸어왔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약은 병을 낫게 하는 화학물질이기 이전에 미신과 무지의 시대를 지나 인류가 찾아낸 '증명의 결과' 이자 문명이 남긴 생존의 기록이기도 하다.

야자 정승규의 '인류에게 필요한 11가지 악 이야기'와 '인류를 구한 12가지 악 이야기'가 전면 개정증보판으로 돌아왔다. 두 책은 약을 의학적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인류의 삶과 사회를 바꿔온 역사적 사건으로서 풀어낸다.

우선 '인류에게 필요한 11가지 악 이야기'는 현대인의 삶의 질과 맞닿은 약들을 중심에 뒀다. 향바이러스제는 에이즈·사스·메르스·코로나19로 이어진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을 관통하는 무기로 등장하고, 피임약은 개인의 몸을 들러싼 선택권의 역사로 확장된다. 항우울제, 조현병 치료제 등은 사회적 낙인을 해소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조현병의 병명 변화(정신분열증→조현병)는 약을 제도와 문화의 산물임을 보여준다.

'인류를 구한 12가지 악 이야기'는 보다 거칠고 오래된 인류사의 현장으로 시선을 돌린다. 감염병과 전쟁, 식민지와 산업화의 시대에서 약은 생존의 수단인 동시에 욕망과 권력이 교차하는 지점에 놓인다. 환각제·마약의 문제, 제약사의 그림자 같은 대목은 약이 가진 양면성을 또렷이 드러낸다.

전면 개정증보판으로 다시 정리된 이번 시리즈는 '최신 의약 동향' 꼭지를 통해 최근 이슈와 제도 변화, 새로운 치료 흐름을 보완했다.

<큰숲·각 2만3000원>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대한민국 빵집 대장정

개띠랑 글·그림

여행의 즐거움은 결국 먹는 데서 완성된다. 그중에서도 맛있는 빵집을 찾아 떠나는 여행은 특별한 설렘을 더한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7개 지역을 누비며 89곳의 빵집을 찾았다는 기록을 담은 '대한민국 빵집 대장정'이 출간됐다. 빵이 좋아 빵집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지금은 SNS에서 '빵 특파원'으로 활동 중인 개띠랑이 전국을 돌며 직접 선별한 빵집들을 소개한다.

사랑받는 동네 로컬 빵집부터 특별한 메뉴로 주목받는 이색 베이커리, 관광지처럼 유명한 국내 대표 빵집까지 '빵 덕후'라면 반할만한 맛집들이 한 권에 담겼다. 아침잠을 포기하고 오픈 런을 해야하거나, 지갑이 얇아지는 헌이더라도 기꺼이 '돈쭐'을 내고 싶은 신뢰도 높은 빵집 리스트도 빼짐없이 담았다.

저자는 오래된 빵집에서는 세월이 흐르면서 쌓인 맛과 편안함을 느꼈고, 새로운 베이커리에서는 실험적인 맛의 조합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전한다. 같은 빵이라도 지역과 제빵사, 소개 방식에 따라 이야기가 얼마나 다채로워질 수 있는지도 이 여정을 통해 배웠다.

전라편에는 풀깃하면서도 현미처럼 거친 식감이 살아 있는 메밀 누룽지빵을 맛볼 수 있는 전남 구례의 목월빵집과 바다 내음이 어우러진 새우 바게트와 크림치즈 바게트가 인상적인 목포 씨엘비베이커리가 소개돼 있다.

충청편에서는 빵순이라면 놓칠 수 없는 대전빵축제의 생생한 현장을 담아 현장감을 더했다. 이와 함께 편의점이나 휴게소 등 특정한 장소에서만 만날 수 있는 빵을 소개하는 등 저자가 직접 맛보고 경험한 7개의 특별 부록도 수록해 성격을 풍성하게 했다.

빵 덕후다운 89개의 재치 있는 질문과 개띠랑이 직접 그린 귀여운 일러스트는 읽는 재미를 더한다.

<청림Life·1만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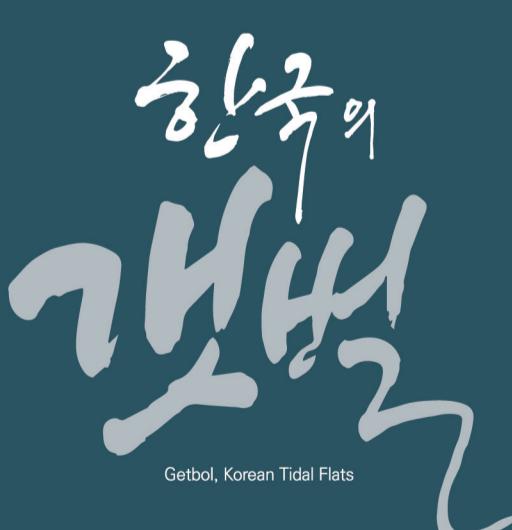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unesco

World Heritage site

Getbol, Korean Tidal Flats



한국의 갯벌은 세계자연유산

• 유산 명 : '한국의 갯벌' (Getbol, Korean Tidal Flats)

• 등재기준 : (x) 생물다양성 및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 등재년도 : 2021년

• 유산면적

명칭	합계 (㎢)	유산지역 (㎢)	인증구역 (㎢)
총면적 (㎢)	2,030.03	1,284.11	745.92
서천 갯벌	104.66	68.09	36.57
고성 갯벌	74.11	55.31	18.80
신안 갯벌	1,773.40	1,100.86	672.54
보성-순천 갯벌	77.86	59.85	18.01

※ 유산지역 면적은 서울시(605.24㎢)의 약 2배, 전체 연안습지보호지역 (1,497.24㎢)의 약 86%, 국가연안습지(2,482.00㎢)의 약 52%를 차지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

자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서식지 중의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인정

• 다양한 형태의 아름다운 갯벌 경관

펄갯벌 위에 새겨진 기하학적 모양의 조수로

새들의 휴식처인 사취와 암반서식처

갯벌 위에 춤추는 무희, 사취

암반서식지 위에서 휴식하는 종도요

모래-자갈 선흑체, 세상에 알리지 않은 아름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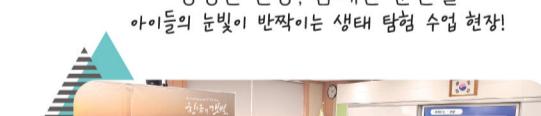
계절별로 다른 형상을 보여주는 혼합갯벌 속의 모래갯벌

직접 만지고 만드는 생태 고구 체험

네 손으로 만드는 미니 갯벌 생태계

갯벌 생태계를 직접 구성해보는 활동

"생생한 현장, 함께한 순간들"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생태 탐험 수업 현장!



한국의 갯벌이 가진 독보적인 특징

- 생물종 다양성을 높여주는 깊은 산소층
- 갯벌 주변에 섬과 산이 보이는 수직적 경관



철새이동

철새의 먹이활동

서식굴

오염된 갯벌에서 갯벌생물을 구하자

평원에서 영역싸움

갯벌의 청소부 업무가

염생식물의 역할